



박 건 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Geriatrician and Neurologist: Specialty Issue

KunWoo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정부에서는 2004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고려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노인병전문의 제도 도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아 노인의학전문의 제도 도입을 거부하였다. 2016년에 들어 내과에서 노인분과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노인분과전문의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노인병 학회를 중심으로 2016년 11월 노인의학전문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에 많은 학회가 동조하여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체 26개 전문과목 학회 중 17개 학회가 노인병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에 동조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현재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는 주요 학회로는 신경과학회, 정신건강의학회, 재활의학회가 있다. 노인병 분야에서 이들 학회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들 학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의라는 제도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에 대처하는 수동적 우려는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 신경학이 배제된다면 학문적 국가적 낭비요소는 자명하다. 더욱이 노인 의학을 주도하는 큰 그림이 신경과 학회를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신경과 학회가 노인의학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전문의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의학이라는 큰 틀에서 신경과는 이러한 타 학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KunWoo Park

Department of Neurolog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73, Incheon-ro, Su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82-2-920-5347 Fax: +82-10-4721-5347
E-mail: kunu@korea.ac.kr